이타도 고개

이타도 고개는 야마구치 현 북부의 하기 시와 남부의 호후 시를 연결하는 역사가도 하기오칸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해발 537m 의 산등성이를 개간하여 조성된 이곳은 가장 좁은 구간의 폭이 채 4m 도 되지 않습니다. 고개에서 히가시호벤잔 산(734m)으로 향하는 등산로로 이어져 있으며, 산 정상에서는 야마구치 현의 내륙부와 연안부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고개 근처에는 옛 스오노쿠니와 나가토노쿠니의 경계를 표시하는 석비도 있습니다.

하기오칸은 17 세기부터 19 세기에 걸쳐 지금의 야마구치 현을 가로지르는 주요 도로 중 하나였습니다. 다이묘(넓은 영지를 다스린 대영주)나 가신들부터 무사와 상인, 인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했습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고개를 넘어 하기 방면으로 이동할 때는 가파른 오르막길이 형성되어 있으며, 고개까지 굽잇길이 42 곳에 이르는 험한 지형입니다.

고개를 지나간 사람들 중에는 번주였던 모리 가문이 관리하는 이치노사카 은광산의 광부들도 있었습니다. 광부들은 일을 무사히 끝마치고 돌아오기를 바라며 고개에 지어진 작은 사당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고개의 이름인 이타도(板堂)는 '판자 지붕을 올린 사당'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당시의 사당이 남아 있지 않지만, 고개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기오칸을 걸었던 사람들에게 사당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장소였습니다.